

봉원사 일운 스님, 오디오 의식교본 '하늘의 소리' CD 5개 제작

“불교의식 전 과정 CD·DVD에 담겠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전수교육조교 일운 스님이 45년 여장 생활중 처음으로 '소리'를 오디오CD로 만들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교육조교 일운 스님(신촌 봉원사 육전법음대학장)이 7월 11일 평생의 '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낸 오디오 의식 교본 '하늘의 소리' CD를 제작 발표했다.

45년 여정의 길을 밟아온 일운 스님은 “은사 운파 스님이 후학들에게 ‘소리’를 제대로 전승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슴에 심어줬다”며 “14세에 출가해 배우기 시작한 법패와 작법을 비롯한 각종 의식들을 1974년부터 매년 교육을 통해 후학들에게 전승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이번 작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하늘의 소리'는 5개의 CD

로 이루어진 비매품이다. 재(齋) 의식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CD는 재 가운데서도 가장 일반적인 천도재 의식을 중심으로 <석문의법>을 참고해 구성됐다. 시련에서부터 재대령 관속 신중작법 상단권공 중단권공 관음시식 봉송에 이르기까지 CD에 담긴 의식 시간만 6시간에 달한다.

후학들에게 전승을 위한 오디오 교본을 만들자는 기획은 1984년부터 시작됐다. 여러 사정으로 기획에만 그쳤던 오디오 교본 제작은 지난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녹음에 착수해 완성됐다.

육성은 육상대로, 징은 징대로, 목탁은 목탁대로, 호적은 호적대로 모두 제각각 따로 녹음을 해 후반작업에서 하나의 소리로 만들어냈다.

작업이 쉽지 않은 않았다. 각각 녹음된 소리들을 한 소리로 합치다보니 미세하게 박자가 엇갈렸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잡아내며 소리를 완성시켰다.

일운문도회 소속 10여명의 스님들이 작업에 동참했다. 총 연출은 해사 스님이, 호적은 지허 스님(천수사 주지)이 각각 맡아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CD 5장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일운 스님은 “매년 또는 6개월에 한번씩 운파·송암 스님께서 일러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전체 의식을 녹음해 후학들에게 전수할 CD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DVD 등으로도 불교의식 전체를 남기고 싶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상주권공, 각배, 영산, 식당작법, 집안, 불공, 수륙재 등 다양한 불교의식들을 조목조목 오디오교본으로 제작할 계획”이라며 “이 오디오 교본만 듣고 연습해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교본 작업을 하고 싶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내비쳤다.

강지연 기자



일운 스님이 평생의 '소리'를 담아 퍼낸 '하늘의 소리'.

남북 공예 美 비교해 보세요

'2006 남북공예교류전-하나됨을 위하여'

8월 16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방아다리 노리개' '생화장식청자꽃병' '랑천사 대들보 단청' 등 남북의 빼어난 공예품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이사장 오원택)과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외전람총국이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06 남북공예교류전-하나됨을 위하여'를 8월 16일까지 연다.



남 박찬수(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작 '금동반가사유상(모자)'.



남 구해자(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작 '노의'.



남 신근식(경기무형문화재 제26호 벼루장) 작 '사각용연'.



북 박창숙 작 '활옷'.

이번 전시에서 남한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박찬수씨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모자)', 중요무형문화재 제64호 두석장 박문열씨의 '혼수환', 경기무형문화재 제26호 벼루장 신근식씨의 '사각용연' 등 중요무형문화재 99명의 작품 250여 점을 선보인다.

북한은 북한 예술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계관인' 칭호를 받은 우치선의 '생화장식청자꽃병', 인민예술가 김창희의 대형 수예작품 '파도', 평양 단청 연구실의 '랑천사 대용전 대들보 단청' 등 북한 최고 예술가 60여명이 제작한 공예작품 200여 점을 전시에 내놓았다. 북측이 청자의 고운 빛깔을 뽐내다면

비교감상할 수 있도록 꾸몄다. '옷차림' 코너에서는 활옷 당의 등 의상과 주립 굴레 등 머리쓰개틀, '상차림'에서는 유기그릇을 비롯해 도자기릇 소반 등 각종 그릇류들, '집꾸림'에서는 가구합발 상자 등과 함께 만자 소반 등 불교공예품을, '멋내기'에서는 자수를 비롯해 악기 문방사우 등 각종 전통 공예품을 한 자리에 전시한다.

남한의 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북한의 소형 불상이 나란히 전시된 코너는 눈길을 끈다. 이번에 출품된 30여 점의 가구와 나전칠기, 단청 자수 작품과 장신구 등 북한 공예품들은 매우 수준높고 다양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옷차림 · 상차림 · 집꾸림 · 멋내기
4개 부문으로 나눠 전시
北 손자수 '파도' 생생함에 탄성



북 단청연구실 작 '랑천사 대용전 대들보 단청'.

남측은 동그런 달항아리로 푸근함을 선사한다. 장식 없이 깔끔함이 돋보이는 남측의 나전반은 만자문양 모란문양 등을 투각해 한껏 멋을 부린 북측의 해주반과 나란히 감상할 수 있다.

요즘 북한에서는 쇠뿔 불교예술품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단청 연구실 등을 뒤 전통 단청을 복구하는가 하면 만자 문양, 연꽃 문양 등 불교 문양들을 활용한 공예품들도 폭넓게 제작되고 있다.

남북 공예품의 차이는 나전공예품에서도 드러난다. 나무를 일일이 파낸 뒤 자개를 박아넣는 전통 삼각기법은 북한에서 그대로 계승됐다. 남한에서는 자개를 붙인 뒤 옷칠을 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차이를 살피볼 수 있다.

'2006 남북공예교류전'은 '옷차림' '상차림' '집꾸림' '멋내기'의 4개 부문으로 나뉘어 남북의 공예품들을 나란히 진열해

평양 수예연구소의 인민예술가 김창희씨의 수예작품 '파도'는 가로 365cm, 세로 182cm의 대형 작품이다. 손자수로 작업한 '파도'는 자수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생생한 파도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남북공예교류전은 지난해 분단 60년을 맞아 처음으로 서울에서 제1회 전시회가 개최돼 6만여명이 관람하는 등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1회 전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여하는 '2005 올해의 예술상' 전통예술분야 전시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는 2007년 8월-9월 유엔에 초청돼 '화합'을 주제로 유엔갤러리에서 전시회도 가진다. 2007년 제3회 전시회는 두 차례 서울 전시회에 이어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시선을 끌고 있다. (02)733-9042

강지연 기자 jyang@buddhapia.com



북 박일수 작 '백동화로'.



북 김일룡 작 '련일소반'.

“즐거운 여름휴가를 아시아문 추천 도서와 함께..”

<p>모든 감정을 탁 놔버려라!</p> <p>진화선 중추를 위한 선한왕 초경 대법회</p> <p>책 너는 누구냐</p> <p>마음 공부 제대로 해서 행복하게 살자는 공부를 해서라도 해보는 사람에게, 해로운 수장 같은 악귀한테서 자신들의 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 왕초경은 한중어에 정통한 저명한 공예·선학·대법회 법문 내공이 넘쳐난다.</p> <p>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역음</p>	<p>대하 로고 다큐멘터리 신왕오전축국전</p> <p>책 초따라 5만리</p> <p>우리 15대 동안 7차례 걸려 10여 개국을 떠돌고 돌아온 신왕오전축국전</p> <p>신국판 302쪽 · 하권 296쪽 각각 18,000원 / 김규현 지음</p>	<p>주제가 있는 '禪' 이야기</p> <p>책 선어삼백칙</p> <p>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지, 이것이 바로 나의 보배이다. 일체를 갖추고 있으며, 조금의 흠결이 나 부족함이 없다.</p> <p>신국판 / 420쪽 / 값 10,000원 차차서 譯解</p>	<p>잊혀져 가는 폐사지 그 소중함을 되찾는 이야기</p> <p>책 잊혀진 가람탐험</p> <p>폐사지 보존 방안 실행계획까지 아낌없이 담고 있으며 사진 장지명이 폐사지를 직접 답사하여 찍은 사진이 가득하다.</p> <p>B6 변형 / 356쪽 / 값 23,000원 장지연 지음</p>	<p>'선방'에서 벌어지는 사건</p> <p>책 선방일기</p> <p>'지'라는 시골에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는 이야기.</p> <p>B6 / 136쪽 / 값 5,000원 지허 스님 지음</p>	<p>'화 잘 내는 사람'은 최고의 수처다!</p> <p>책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p> <p>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처로 여기는 티베트 인들의 성전 '보리도차제(轉經次第)'를 소개한 스님이 직접 번역한 책.</p> <p>B6 변형 / 178쪽 / 값 6,000원 초법 스님 번역</p>
<p>집착은 마음의 적!</p> <p>책 스님이야기</p> <p>수행·복지·포교·교육 등에 매진하며, 구도계 활동은 스님들의 지열한 삶과 영감이 살아있다. 영산 스님들의 수행의 속에는 제1차 에피소드들도 가득 담겨있다. 그 지열한 삶의 모습이 되고 나아가 불교의식의 한 장면이 되는 스님들의 진실한 모습이 담겨 있어 의미가 깊다.</p> <p>448쪽 / 값 12,000원 지록 지음 외</p>	<p>참선자의 필수도서</p> <p>책 참선요지(參禪要旨)</p> <p>깨달음을 향한 과정 중 안일과 내재 그리고 마음과 지각, 참선에서 벗어나 수행자의 모습을 찾도록 하는 필수 지침서.</p> <p>B6 변형 / 278쪽 / 값 5,000원 허운화상 법어 / 대성 옮김</p>	<p>오직 당신에게만 권하는 붓다의 지혜 이야기</p> <p>책 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p> <p>2,600여 년이 지난 21세기에도 유효한 내침반으로서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붓다의 가르침</p> <p>신국판 / 344쪽 / 값 9,000원 안양규 지음</p>	<p>그대의 날개를 자유롭게 펼쳐라!</p> <p>책 항금빛 봉황이</p> <p>바닷물이 밀려간 뒤 아름다운 조약돌이 드러나듯 좌불 좌향한 선이(禪)들은 인간적인 문자세를 찾아볼 수 없다. 막에 담긴 실재의 묘미를 오직(佛性)에 모두 빚어내 주는 이야기이다.</p> <p>— 불국사 승가대장장 덕인 스님</p> <p>신국판 / 358쪽 / 값 10,000원 수물 지음</p>	<p>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경 법어사 설선대법회</p> <p>책 문없는 문을 열다</p> <p>한국불교의 전통선인 간화선 10명의 대산자들이 훈야년 설법을 통해 이야기한다.</p> <p>법회 현장에서 오고간 절의영상을 고스란히 옮겨 놓아 생생한 현장감을 더 제공한다.</p> <p>A5 / 449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역음</p>	<p>염불삼매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p> <p>책 21세기 붓다의 메시지</p> <p>문수의 법왕자로서 무척남의 법을 전하노라 신공공덕이 많은 선불지 선어인들은 이 책을 의식하지 말고 꼭 읽으라</p> <p>A5 / 300쪽 / 값 15,000원 지재민 역</p>

www.yosiamun.com

여시아문 이메일 : yosiamun@buddhapia.com 전화주문 : (02)2004-8219, 737-0695 팩스주문 : (02)737-0696